

## 北, 연평도 포격

속속 드러난 軍 부실대응

# 대포병레이더 제기능 못해 K-9 자주포는 절반이 고장

지난 23일 오후 북한의 포격도발 때 연평도에 배치된 자주포 일부가 고장 나고 대포병레이더(AN/DTP-37)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격 원점을 타격하는데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우리 군의 대응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 당국이 대응사격에 동원된 K-9 자주포 수를 놓고 사건 당일인 23일에는 6문이라고 했다가 24일에는 4문, 25일에는 3문으로 수정해 '발바꾸기'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의 1차 포격 때 대포병레이더(AN/TPQ-37)의 오작동으로 포탄이 날아오는 지점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대포병레이더가 작동하고 있었지만 제 구설을 못해 방사포가 북의 개머리 진지에서 발사되고 있음을 탐지하지 못한 것이다. 직사화기인 해안포는 대포병레이더로 인식하기 어렵지만 과사화기인 방사포는 탐지가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개머리와 무도 진지에서 동시에 사격했는데도 오후 2시47분부터 시작된 우리 측의 대응사격(50발)은 좌표가 미리 입력된 무도로만 향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1차 포격 때는 대포병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2차 포격 때는 대포병레이더가 작동해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가 날아오고 있음을 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후 3시12분부터 시작된 2차 대응사격 때는 개머리 진지에 30발을 발사했다.

결국, 대포병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연평부대는 사격 원점을 찾는데 애로를 겪었고 방사포 진지를 효율적으로 타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평도 후방에 위치한 군부대와 민가를 공격한 포탄이 방사포임을 감안할 때 대포병레이더의 면통은 민·군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초 대응사격 때 해병대 연평부대

의 K-9 자주포가 6문 중 3문만 작동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포 사격으로 연평부대가 보유한 K-9 자주포 6문 중 2문이 전자회로장애를 일으켰고 1문은 앞선 사격훈련 때 불발탄이 끼었다"며 "우선 3문으로 대응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연평부대는 북한의 포격으로 사격 통제장치에 기능장애가 발생했던 1문을 오후 3시6분에 긴급히 수리해 대응사격에 가담시켰다. 오후 2시47분부터 59분까지 황해남도 강령군 무도 쪽을 향해 최초로 30발을 발사할 때까지는 K-9은 3문밖에 작동하지 않았다.

연평부대가 보유한 화기 중 유일하게 북한의 포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K-9이 절반 밖에 작동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무력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군은 사건 당일인 23일에는 6문이 동원됐다고 했다가 24일에는 4문이 대응사격에 나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불타는 진지 뒤로 대응사격하는 해병대

지난 23일 오후 해병대 연평부대 K-9 진지에서 한 해병대원이 북한의 기습적인 포탄 공격에 긴급 대응 사격준비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 “北 2차 폭격 직후 전투기 대응폭격 지침”

### 청와대 관계자 “李대통령 확전 방지 발언 안해”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2차 포격 도발 직후, 전투기 폭격 대응 방안이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남북 간의 교전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 이 대통령은 군 수뇌부로부터 아군이 K-9 자주포로 응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게 그것(K-9 자주포)밖에 없느냐. 다른 게 더 없느냐”며 안타까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K-9 자주포가 ‘곡사’의 한계 때문에 해안포 진지를 직접 타격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능가할 공격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쏟아내면서 전투기 폭격 가능 여부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전투기 폭격의 경우 전면 전비 가능성에 있고 한미연합사 차원의 작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 가능한 대응 방법은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나 합참에 이 대통령이 확전 방지 지침을 내렸느냐를 확인하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된다”며 “대통령이 확전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전을 막으라는 공식 지침이 실제로 군에 내려간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한편, 북한군의 포격 도발에 앞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황해도 지역의 양어장과 오리농장 등을 방문, 공격을 앞두고 현장지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현재 연평도 도발을 전후한 김정일 부자의 동선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초기 대응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확전 방지’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나 합참에 이 대통령이 확전 방지 지침을 내렸느냐를 확인하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된다”며 “대통령이 확전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전을 막으라는 공식 지침이 실제로 군에 내려간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한편, 북한군의 포격 도발에 앞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황해도 지역의 양어장과 오리농장 등을 방문, 공격을 앞두고 현장지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현재 연평도 도발을 전후한 김정일 부자의 동선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해병 전사자 보상

### 사망일시금 2억원

### 매월 93만원 연금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전사한 해병 연평부대 고 서정우(22) 하사와 문광욱(20) 일병의 유족이 받게 되는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25일 국가보훈처와 해군본부 등에 따르면 전사자의 경우 군인연금법에 따라 계급과 관계없이 소령 10호봉 보수월액(277만8000여원)의 72배가 유족에게 일시금 지급된다.

이에 따라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유족은 2억여원을 받게 된다. 또 보훈법에 따라 매월 93만2000원의 보훈연금도 지급된다.

보훈연금은 외아들이거나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 등일 경우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보훈연금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한 달부터 수령할 수 있다.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 아닌 병사는 퇴직수당과 군인공제회 위로금,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의 대상은 아니다.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은 병장과 이병에서 각각 1계급 추서 진급됐다.

/연합뉴스

## 北 콘크리트 관통 특수포탄 발사

### 포탄 수거 성분 분석…화염·고열·고압 발생 인명살상

### 군당국 서북 도서 전력증강 예산 요청

도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우선 북한의 해안포 포격에 대응사격에 나섰던 K-9 자주포를 0원에 배치할 수 있는 예산 약 820억원을 요청했다. 군은 현재 K-9 자주포 6문이 배치된 연평도에 0원을 추가 배치하고 백령도에도 새롭게 K-9 자주포 0원을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정밀타격유도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 560억원도 요청했다.

군은 또 북한의 1차 포격 때 연평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대포병레이더(AN/TPQ-37)

를 연평도와 백령도에 배치하기 위해 371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포병레이더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음향탐지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도 요청했다./연합뉴스

## 연평도 잔류주민 모두 섬 떠난다

### 여객선 운행 재개…해병대원들 속속 귀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연평도에 남았던 주민들이 모두 섬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연평도에 남은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의 최성일(47) 위원장은 25일 “지금 남은 주민들을 모두 인천으로 나가게 하고

있다. 완곡히 남겠다는 사람들만 빼고 모두 섬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8일 한미 훈련이 예정돼 있어 불안하다. 날씨는 추워지고 집도 파손돼 여기서 더 기거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까지 다 떠나면 남은 인

원은 20여 명 정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통제했던 인천~연평도, 인천~백령도를 비롯한 인천과 섬 지역을 오가는 12개 항로, 14척의 여객선이 25일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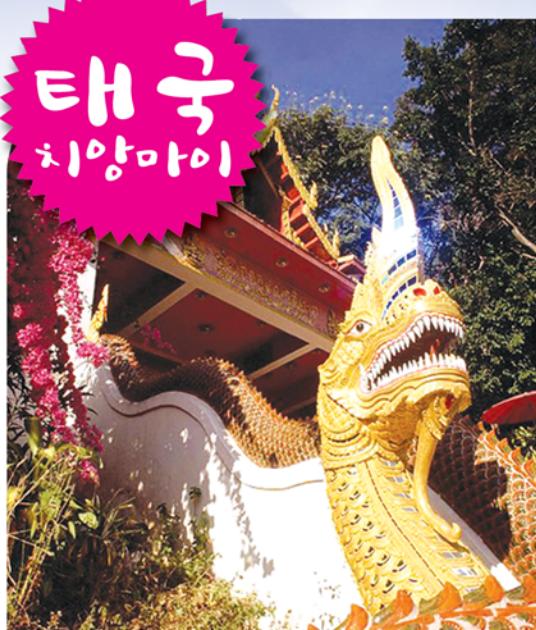
이날 오전 8시50분께 백령도 행마린브릿지호가 인천항을 떠나는 것을 시작으로 항로의 운항이 정상화되면서 긴급귀대 지시에 따라 휴가를 중단한 해병대원들의 귀대행렬도 줄을 이었다.

/최권일기자 ck@.연합뉴스

# “2011년 1월”

# 무안공항 출발 전세기 취항

컨티넨탈 항공 / B737-800 / 152석(비즈니스 13석)



**골든 트라이앵글 3개국의 중심  
순수한 자연의 세계**

**출발일 2011년 1월  
5일, 9일, 13일, 17일, 21일, 25일**

- ★ 골든 트라이앵글 3개국 (태국/미얀마/라오스)관광
- ★ 치앙마이 관광&골프 72홀
- ★ 치앙마이 골프 99홀
- ★ 고품격 3개국 관광&골프 72홀
- ★ 전 상품 NO -TIP



**다이나믹한 해양스포츠의 천국  
골퍼들의 낙원**

**출발일 2011년 1월  
6일, 10일, 14일, 18일, 22일, 26일**

- ★ 골 관광 & 휴양 4일
- ★ 골 PIC GOLD 4일
- ★ 골 레오파드스 골프 4일
- ★ 고품격 골프 4일
- ★ 온워드 골프 4일

**| 광 주 |  
롯데마트**  
첨단점 062.973.9114  
상무점 062.376.1455  
월드컵점 062.676.0085  
광주수원점 062.953.5151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3.5588

**| 전 남 |**  
여수점 061.643.6077  
여천점 061.684.1117

**| 전 북 |**  
롯데마트  
전주점 063.282.2626  
군산점 063.465.8200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2980

**| 협 찬 |**  
Continental Airlines 컨티넨탈 항공

Guam Visitors Bureau  
괌 정부 관광청 한국사무소

태국관광청

WOOJINM 우진

LOTTE JTB  
Travel & Life